

# 익산시 희망일자리사업 호응

### 취약계층 경제활동 참여기회... 생계안정 도모 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제공, 시민 삶의 질 향상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3월 시에 따르면 실적과 폐업 등으

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단기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발해 환경정비, 생활 방역, 공공 휴식공간 개선 등 공공일자리 사업유형에 맞춰 사업장을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는 1,522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4개 동 가로 환경정비사업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 ▲공원관리 지원사업 ▲초·중·고등학교 방역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장에 파견돼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14개 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총 3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취약구역 가로청소와 주요 인도면 제조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유지하고 가꿔나가기 위해 상가주들과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와 공원관리 지원사업은 40명의 인력을 배치해 가로수 제초와 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추진된다.

학교방역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총 218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개별 사업장에서는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근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경제활동 참여와 생계안정을 찾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산시, 태풍 마이삭 피해 복구 총력

### 벼도복·과수낙과·가로수 전도 등 약 40여건 피해

군산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제9호태풍 마이삭은 35.6m/s(말도), 육지(평균) 17.1m/s의 풍속과 선유도 93.5mm 미성 등 97mm의 등의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는 벼도복(200ha)과 과수낙과(21ha 중 5~10%), 옥도면 개인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지곡동 교회의 참담 전도 및 가로수 전도 등 약 40여건의 피해를 입었다. 군산시는 피해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실과에서 응급복구를 시행해 복

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일과 2일에는 2차례 제9호 태풍 마이삭복상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호우 및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제10호 태풍 하이산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호 태풍에 대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고 10호 태풍에 대해 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인재라는 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한경봉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산사랑상품권 2돌...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 군산상의, 군산시에 감사패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군산사랑상품권 2주년을 맞아 3일 군산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로서 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시민들에게도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해왔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군산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군산상공회의소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군산 경제의 불씨를 살려낸 군산시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한 김동수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공직자들에게 군산시 상공인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한다"며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 되

어 주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금 현재의 코로나 위기는 물론 어려운 지역 경제까지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고 화답하며 "이렇게 군산사랑상품권의 2주년을 함께 기뻐해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군산시민이 희망을 갖고 웃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코로나 블루 극복 희망 선사"

### 시민 생명구한 이동민·남현봉·김군삼씨에 감사패

군산시는 3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을 구한 의로운 군산시민 이동민·남현봉·김군삼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동민씨는 지난 8월 14일 월명동 교보생명 빌딩 옆을 지나던 중 폭염으로 길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행인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시켜 병원으로 이송 조치, 행인의 목숨을 구했다.

남현봉씨는 8월 18일 선유1구 몽돌해수욕장 펜션을 청소하던중 몽돌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가 뒤집혀 하체경직으로 일시적인 마비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며 익사 직전에 있던 해수욕객을 100m가량 수영해 구조했다.

또한 김군삼씨는 8월 20일 양식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비응항에서 SUV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것을 목격하고 그곳으로 배를 이동시켜 안전장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차속에 있던 운전자를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 조치, 운전자의 목숨을 구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하며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게 돼 시민으로서 뿌듯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시민에게 누구보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동민·남현봉·김군삼씨 행동을 장기간 코로나19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시민에게 큰 희망을 선사했다"며 "비

로운 일을 한 점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몸소 실천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는 사회 풍조가 널리 퍼지도록 군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한경봉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익산시의회,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강화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제230회 임시회 기간동안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열린 첫 임시회인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의회 차원의 방역 강화와 예방활동에 나선 것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좌석에 47

개의 비말방지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 출석 및 배석 인원 최소화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의원과 참석 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자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